

지난 수세기에 걸친 지구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인류에 의한 환경재앙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표적인 회의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 협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제4차 기후변화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기온은 14.5도이며,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2100년까지 기온이 4-6도 상승할 것이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중의 온실가스농도를 450ppm 이하로 안정시켜야 하고, 산업화이전과 비교하여 2℃ 이하로 온도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하면 극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을 상승시켜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지가 사막으로 바뀌며, 지구상의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개국 1만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대응방안

5000명의 대표단과 그동안 참가하지 않았던 105개국의 국가정상들이 참가하여 지구촌의 환경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류 공멸의 위기를 앞두고도 자국의 득실만을 따지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하여 회의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책임이지만, 지금까지의 온난화는 산업화과정에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구환경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다 확실한 태도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감축량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우 역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량감소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량목표 설정이 어려운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한 탄소강도(carbon intensity)

를 저감시키도록 하여 전체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자원과 기술지원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분담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온난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적으로는 선진국임을 홍보하고, 내용적으로는 개도국 노릇을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구환경에 대한 국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축량을 현재 제시된 2005년 대비 4%가 아니라, 보다 강화된 감축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분명히 앞으로는 저탄소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와 산업전체에 대한 구조적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불교계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람에너지 효율화방안의 강구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을 바탕으로 한 불교계 내 생활양식의 정립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췌로 기후협약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지구전체의 공존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지금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대들도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새해를 맞아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각오를 다졌던 2009년이 어느새 탈력의 마지막 장막 남기고 있다. 마지막 한 장막 남긴 2009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후회를 남기면서도 2010년을 맞이할 준비로 마음이 설레인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마다 새로운 발원과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러나 시간 자체에는 그러한 연월일이 새겨져 있지 않다. 시간은 아무런 의식이 없다. 덧없이 흘러 갈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며, 이 달이 가고, 새달이 오고, 목은해가 기울고 새해를 맞는다. 이것이 우리 삶의 테두리이다. 현대불교 교화의 태두 중 한분이었던 고고익진 교수는 이를 두고 "모든 중생은 시간의 제약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이신데,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잘생기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못생기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사람이 그 어느 일점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시작과 끝이 설정된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고고익진 교수는 "부파불교부터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시간의 실재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불교에서 시간의 부정성은 지혜의 눈에 비친 세계이며 열반에 머물지 않는 중생이 시간의 세계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속에 던져진 중생에게 집착의 활동은 잠시도 쉬 새가 없다. '시작(始)'에는 필연적으로 '끝(終)'이 있지만, '끝(終)'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집착을 한다. 집착은 곧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끝남'은 다시 '새로움'이 되고, '새로움'은 다시 '끝남'이 되어, 처음과 끝이 무한하게 반복이 계속된다. 그리하여 중생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無始無終)'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관에 대해 고고익진 교수는 원효 스님의 서술을 소개하고 있다. "허공이 무량하므로 중생 또한 무량하고 3세가 무제(無際)하므로 생사 또한 시종(始終)이 없다. 중생에 시종이

없기를 부처에 시종이 있었는가, 만일 부처에 처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부처가 없을 것이나, 가르침이 없으면 수행이 없으니 성불 또한 있을 수 없다. 수행이 없는 성불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에 처음이 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부처에 처음이 없지만 그렇다고 일찍이 중생이 아니었던 부처는 없다. 중생 또한 끝이 없지만 한 사람도 부처가 되지 않을 부처는 없다. 부처와 중생이 이렇게 전전(展轉)해 무시무종(無始無終)인 것이다."

기후변화를 맞이하며 했던 각오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후회,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2009년을 보내며 또 다시 경인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발원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닐까? 삶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이 있기에 해탈이 있지 않을까? (生苦 苦悶成)



염석훈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 풀이

[제1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침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2권, 3권도 곧 출간예정입니다.

원료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역이 지성, 만물을 꿰뚫는 무식력, 특히 풍부한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최신 김성진 지음·신국판·양장본·값 35,000원

송월스님의 개증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받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가흔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이계 풍수다

신국판/성재진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轉方處方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돈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